

1면 상단기사에 이어 ▶

유불선 모든 경전에 증거되어 있어야 구세주

님이다. 이분들이 경전 속에서 찾아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경, 불경 등의 경전과 예언서에는 구세주, 미륵불, 정도령이 조(曹)씨 성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다.

불경 중 미륵진경에는 赦罪天曹求衆生(사죄천조구중생), 즉 하늘의 조 씨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중생을 구원한다. 미륵하생경에는 天曹錄人罰善惡(천조록인간 선악노심보응), 즉 하늘의 조 씨가 인간의 선악의 노고를 기록하여 응당히 보답한다. 선불가진수어록에는 曹環陽真人 如知天仙金丹大道(조환양진인 시지천선금단대도), 즉 양을 회복한 眞人 曹씨가 天仙의 金丹大道를 성취한다고 예언하여 미륵불이 조희성님과 같은 조(曹)씨 성으로 나올 것이 예언되어 있다.

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훨씬 능가하는 한민족의 위대한 예언서 격암유록 새(養) 41장에는 大陸東方海隅半島(대륙동방해우반도) 天下一氣再生身(천하일기재생신) 人生秋收(인생추수) 糶米端風驅飛(조미단풍구비) 糶飄風之人(조표풍지인) 弓乙十勝(궁을십승), 즉 대륙의 동방 바다에 둘러싸인 반도 땅에 천하의 기운을 받아 거듭난 몸으로 인생을 추수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가 궁을의 이기신 하나님(정도령)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인생을 추수하는 분이라는 것은 구세주를 말하며 문장에 지계미 조(糶)자에서 쌀 미(米)자를 바람(風)에 몰아(驅) 날려(飛) 버린 조(曹)씨의 사람이 십승(十勝) 즉 이기신(勝) 하나님(十)이라는 뜻으로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정도령이 나라는 주체의식을 이기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기신 하나님으로서 조(曹)씨 성으로 온다는 것을 예언하여 무리 조(曹)자 창녕 조(曹)씨로 조희성님과 일치하는 성씨로 미륵불, 정도령, 십승 즉 이기신 하나님이 온다는 예언이 불경과 똑같다.

성경 이사야 41장 1절에서 16절에도 “섬들이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을 불러일으키라니 열국의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라~그는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곧 내가 그나라(중략)내가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보라 너와 닮은 자들과 너와 싸우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



우측 흰부분은 이승신

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날리겠고 흩어 버릴 것이로다.” 라고 하여 이스라엘로부터 동쪽 땅 끝 땅 모퉁이에 있는 한국 땅에서 인생을 추수하고 만국을 다스릴 구세주가 온다고 예언하여 격암유록과 불경과 일치하는 예언을 통해 한국 땅에서 조 씨로 구세주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성경, 불경 등의 경전과 예언서에는 구세주, 미륵불, 정도령이 밝은 별이라는 뜻의 조희성님의 이름 밝을 희자, 별성 자 희성(熙星)이라는 이름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다.

불경 불설미륵내시경(佛說彌勒內示經)에 明星出時得佛道(명성출시득불도), 즉 밝은 별이라는 이름으로 미륵불이 출현할 때 불도를 얻게 된다. 미륵하생경에 世尊曰我差天星次第下生一切眷屬皆作天人(세존왈 아차천성차제하생 일체권속계작천인) 즉 세존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음에 하늘의 별로 내려오리라. 그리하여 일체 권속이 다 하늘 사람이 되게 하리라. 미륵하생경에 命諸天曹教化衆生(명제천상교화중생) 즉 하늘의 별이 모든 중생을 교화시켜 호령한다라는 예언 등에서 조희성님의 이름 희성(熙星)이라는 이름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격암유록에도 초창(初章)에는 欲識蒼生保命處(욕식창생보명처) 吉星照

臨眞十勝(길성조림진십승) 즉 생명을 보전하는 지식을 구하는 곳은 갈탄 별이 밝게 비추어 임하는 이기신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격암유록 도부신인(桃符神人)편에 大白金星曉星照(대백금성효성조) 즉 큰 의인은 금성 즉 새벽 별이 비치는 자라고 하여 새벽에 가장 밝은 별 금성이라는 뜻의 밝은 희자 별성자 라는 이름으로 정도령이 올 것을 예언하였다.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또 만국 공용의 합동 찬송가 후렴에는 “구주는 산꼭에 백합 명량한 새벽별 만인 위에 뛰어 나시는 주일세” 라고 하여 위에 구세주는 새벽 별 즉 밝은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고 불경, 격암유록과 일치하는 예언을 해 놓았다.

성경, 불경 등의 경전과 예언서에는 구세주, 미륵불, 정도령이 조희성님과 같은 신미(辛未, 1931년생)년 양띠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다.

불경 미륵진경에 白馬羊年吾當下生於二社去來之地(백마양년오당하생어이사거래지) 즉 신미년에 사바세계에 오시는데 두 세상이 가고 오는 땅이 된다고 하여 신미생으로 오는 미륵불에 의해 죽은 세계는 가고 영생의 세계가 온다는 말로서, 白馬는 庚午年 1930년을 말하며 羊年은 1931년 辛未

년을 뜻하여 신미년 1931년 양띠로 미륵불이 온다고 예언되어 있다.

격암유록 궁을론에는 靑龍之後女上加一(청룡지후여상가일) 地邊去土狗驚伴喜五八年(지변거토구경양희58년)이라고 예언하여 청룡 즉 푸른 오형상 甲, 용은 용피 辰을 의미하여 1904년 갑진년(甲辰年)으로부터 여상가일 즉 여자라는 뜻으로 조희성님이 김포에서 출생할 것을 격암유록 출장론(出將論)에 西湖出生眞人(서호출생진인) 즉 서호에서 진인이 출생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해석하면 서(西)는 오형상 금(金)을 뜻하고 물가 호(湖)자는 물가 加一(청룡지후여상가일) 地邊去土狗驚伴喜五八年(지변거토구경양희58년)이라고 예언하여 청룡 즉 푸른 오형상 甲, 용은 용피 辰을 의미하여 1904년 갑진년(甲辰年)으로부터 여상가일 즉 여자라는 뜻으로 조희성님이 김포에서 출생할 것을 격암유록 출장론(出將論)에 西湖出生眞人(서호출생진인) 즉 서호에서 진인이 출생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해석하면 서(西)는 오형상 금(金)을 뜻하고 물가 호(湖)자는 물가

성경, 불경 등의 경전과 예언서에는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이 한국 땅에서 출현한다고 예언되어 있다.

불경에는 증일아함경 49권에 將來之世有佛名彌勒出現於世(장래지세유 불명미륵출현어세) 彌時國界名鷄頭王所治處(미시국계명계두왕소지처) 즉 장래 세상에 부처님이 있어 미륵이라 하며 세상에 출현하시는데 이때의 나라 이름은 ‘계두왕’ 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예언하여 미륵불이 한국 땅에서 출현한다고 예언하여 놓았는데 계두왕은 신라 석탈해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며 그가 닭이 우는 숲에서 나왔다고 하여 예로부터 우리나라 이

름을 ‘계림(鷄林)’이라 부르게 된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 불경의 내용은 앞서 밝힌 격암유록 새 41장과 성경 이사야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예언과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성경 요한계시록 7장 2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하더라”라고 예언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살아있는 몸에 좌정하여 예로부터 해 돋는 나라로 알려진 한국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

진인(眞人) 정도령이 경기도 김포에서 출생할 것을 격암유록 출장론(出將論)에 西湖出生眞人(서호출생진인) 즉 서호에서 진인이 출생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해석하면 서(西)는 오형상 금(金)을 뜻하고 물가 호(湖)자는 물가 加一(청룡지후여상가일) 地邊去土狗驚伴喜五八年(지변거토구경양희58년)이라고 예언하여 청룡 즉 푸른 오형상 甲, 용은 용피 辰을 의미하여 1904년 갑진년(甲辰年)으로부터 여상가일 즉 여자라는 뜻으로 조희성님이 김포에서 출생할 것을 예언하였다.

또한 조희성님이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에서 불사영생의 세계를 만드는 공복에서 野黍(야소사지) 즉 “시작도 끝맺음도 간방의 소사평에서 한다”라고 예언하였고, 조선의 유명한 학자 이윤곡 선생의 율곡비(栗谷秘)에는 驛谷勝地人中之地(역곡승지 인중지) 즉 “역곡은 승리하는 땅이요 중천 운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땅”이라고 예언되어 있으며, 격암유록 도부신

인 편에 天崩地拆素砂立(천붕지삭사립)을 十勝(십승인)께 문의 하소, 즉 “무너진 에덴동산 하늘나라가 소사에서 다시 세워짐을 십승인에게 물어 보라”고 예언하였다.

성경, 불경을 비롯한 종교의 경전과 고대 예언서에는 빛과 같은 이슬을 물에서 내리는 사람이 구세주, 하나님, 미륵불, 정도령, 진인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그 빛과 같은 이슬은 자아의식을 떨치고 성령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경 상에는 빛난 이슬(이슬성신) 그리고 불경, 노자의 도덕경, 강증산의 중화경 상에는 감로(甘露), 고예언서 격암유록, 정감록 상에는 감로해인(甘露海印)으로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 내용을 일부 보면 성경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호세아서 14장 5절에는 “내(하나님)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구세주)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미가서 5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요엘서 2장 28절에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고 하여 하나님이나 빛과 같은 이슬로 이긴자 구세주에게서 내리니 이 땅에 점점 죽음이 없어지게 된다고 예언하였으며 불경 등 다른 경전과 예언서에도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희성님은 모든 예언에 적중되는 존재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



예배를 때 내리는 빛은 이승신

1면 하단기사에 이어 ▶

대동강변에 출토된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외양

가나안 소라 성읍에서 동쪽으로 이주하던 단지파 백성들은 신속히 행군하여 알타이산맥까지 오는데 한두 해를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 알타이산맥 근교에서 약 100년 동안 우거한 후 몽고초원과 만주를 경유하여 압록강을 건너 다음 남하하여 대동강변에 도착한 단지파 백성들에 의해서 고조선이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미 100년 전에 알타이산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단지파 백성 가운데 젊은 제사장과 가마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자를 그리고 기와를 다루는 장인들을 뽑아서 한반도의 대동강변에 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축조하고 고조선의 수도가 될 수 있게끔 기틀을 세웠던 것이다. 제단을 축조할 때 짐승이 드나들지

못하게 기와를 얹은 담장을 만들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S자형 기와골 끝에 보름달 모양의 원판이 달린 수막새를 최초로 제작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반도에서 고조선을 건국한 민족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단지파 백성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원형 수막새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사용했던 고대 히브리 글자를 새겨 넣게 하였는데, <도착했다>는 히브리어와 <오염화와 단결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히브리어가 새겨진 외양이다. 그리고 눈알이 제거된 삼손의 얼굴이 아래위로 있는 외양에는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는 히브리어와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다.*

백태선 기자



(마지막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다

“사무치게 그리웠던 하나님의 얼굴 여기 와서 뵈게 되니 내 영혼 울리네”

어느 날인가 누군가가 내게 말을 했다. 사람이 피가 썩어서 죽는다고. “아! 절에 다닙니까?”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높은 경지에 이른 분입니다” 격암유록이라는 책 이야기를 자주 했다. “책 좀 가져와 보세요” 매번 잊어버렸다면 그냥 왔다. 얼마 후 가져 온 책이 영생학 책이었다. 이해는 좀 안 되는데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와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갔다. 꽃꽂이회에 출강하는 아트플라워 강사다. 예배를 때 비디오의 얼굴 모습이 유난히 둥글고 빨개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 21일 교육기간 중 7일째 되는 날 지옥과 천당에 관한 말씀을 듣고 성당

다닐 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옆집에 사는 나를 카톨릭으로 인도한 동갑내기 최 벨라데라는 “지옥에 가면 하루가 천 년처럼 고통스럽대요”라고 했었다. 주님은 하나님이 몇세 동안 일을 하시고 이제 되는 날 쉬셨는데 성경 말씀은 짝이 맞아야 하나님 말씀(이사야 34:16)이라고 하시면서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베드로후서 3:8)라고 하였으니 몇세 동안 일을 하셨다는 것은 하루가 천 년이므로 6천 년간 일을 하시고 7천 년에 쉬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순간 7천 년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아!

그때 그 꿈, 7천 년’ 생각이 떠올랐다. 얼굴이 같다. 모습이 여자 모습일 뿐이었다. 백합화 향기가 코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향취에 취해 있었다. 콧속이 아렸다. 진한 향기였다.

“육천년간 갇힌 죄인 살려주신 주님 주장하신 감사함이 뺨골 속 적시네” 얼마나 지났을까. 오랫동안 주님을 뵈 수 없었다. 욕으로 가신 후 7년 만에 다시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주님이 낯설게 느껴졌다. 고생 끝에 변한 모습이 그랬다. 그리고 이제야 다정다감하게 되었다고 느꼈을 때 주님은 다시 욕으로 가셨고, 보광하셨다. 보광하신 날 아침 주님은 향취로 나를 안정시켜 주셨다. 아침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향취가 나의 아와한 생각이 들었었다. 나는 사람, 멍청하게 어안이 병병해서 있는 사람... 주님의 보광은 인간 구원을 위한 전

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때가 되면 빛으로 환원된다는 말씀이 보광이었다. 성절생인신명출(聖切生身馬神明出), 구세주의 희생을 말하고 있다. 빛으로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다.

모두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날이 빨리 와야겠다.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셨다.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겠다. 단절보다는 잠정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나무가 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남의 허물은 내 허물이 되어야 한다. 욕중에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30훈(訓)을 가끔 보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된다. 좀더 가까이 내일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가고 있는가? 그날이 오기까지 나를 깨우쳐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자. 마귀 욕에서 해방이 되어, 그날 다시 웃자.*

임숙빈 / 보광패션